



필리핀 투자 · 프로젝트 뉴스

2009. 6.30, Bi-Weekly, No. 23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마닐라

Focus

필리핀 바이오에너지, 한국 등 국내외 기업 투자 본격화 III: 바이오연료 공장, 원료작물 경작지 투자 발표 잇따라

경제 통상 정보

필리핀 재생에너지법 투자 인센티브 ABC: 시행령 공포로 투자관심 높아져

필리핀, 최적의 입지조건으로 풍력발전 선도: 국내외 투자유치 적극 추진

필리핀 재생에너지 투자포럼, 외국기업 투자 발표 잇따라

: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협력 모색, 영국기업 바이오매스, 풍력 투자

투자 Project 정보

San Lorenzo Wind Project

Mindoro 풍력발전 Project

Luzon Landfill Gas Project

Visayas 바이오매스 에너지 Project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1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2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전문가 칼럼

필리핀 투자진출 추진시 유의사항

필리핀 내 제조공장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경제 단신

필리핀 코코넛 오일 수출 반등

필리핀 통상산업부 투자유치 기관 업무조정 추진

NEDA, 철도, 방송 분야 1.5억 달러 프로젝트 승인

Global Biomass 3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원료 공급 계약 체결

RD Group, Sarangani 지역에 5.2백만불 투자, 조선소 건립 추진

美 Stream Global Services사 콜센터 사업 12백만불 증액투자, 아태 본부화 추진

英 Cyber City Teleservices사 콜센터 투자건, BOI 인센티브 확정

투자진출 A to Z

BOI, PEZA 투자 인센티브 신청후 승인까지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안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법률회계 고문 무료 상담

무역투자 정보포털(Global Window) 안내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Focus

필리핀 바이오에너지, 한국 등 국내외 기업 투자 본격화 III

- 바이오연료 공장, 원료작물 경작지 투자발표 잇따라 -

- 필리핀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13개 필리핀 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 등의 방식으로 총 530억페소(약 11억달러) 규모의 바이오연료 설비 투자를 추진중임.
 - 최근 수년간 바이오연료에 대한 국내외 투자증가로 필리핀 바이오연료 생산 capacity가 2005년 53백만 리터에서 현재 3억83백만 리터 규모로 4년새 6배 이상 급증했음. (에너지부)
 - Reyes 에너지부 장관은 이들 투자건들이 Biofuel Act 2006(RA 7367) 발효에 힘입은바 크다며, 정부도 부족한 원료 공급을 위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원료 공급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힘
 - 동 법은 필리핀 내 판매 가솔린에 대해 5% 바이오에탄올 혼합, 디젤에 대해 2%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도 해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계속 논의중임. 이외 바이오디젤 판매 시 부가세 면제, 바이오연료 생산설비 수입시 관세 면제, 공공기관 통한 재정지원 등이 지원책으로 동법에 포함. 정부 바이오연료 위원회(NBB, National Biofuels Board)는 현재 바이오연료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승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작업중임.
- 필리핀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1개 제조사가, 총 3.8억리터/year 규모의 바이오디젤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개사에 대한 승인 절차 진행중임.
 - 3.8억리터는 현재의 2% 혼합률에 따른 연간 1.5억 리터의 바이오디젤 수요량의 2배 가 넘는 수준으로 coco methyl ester로 불리는 바이오디젤은 코코넛, 자트로파 등에서 추출됨.
 - 11개 기승인 기업은 Chermez Inc(상장기업), Senbel Fine Chemicals, Romstron Phils Inc, Pure Essence Int'l Inc, Freyvonne Milling Services, Golden Asian Oil Int'l Inc, Mt. Holly Coco Int'l Co Ltd, Rasza Agro Produce Corp, Bio-energy Corp, Tantuco Enterprises, Lipi Tech Inc.
 - 2개 승인절차 진행기업은 Atson Coco Inc, Lion Chemical Corp. 사임.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 영국기업인 Pacific Bio-Fields Holdings Plc 사는 코코넛 나무 농장 조성 목적으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북부 루존 지역에 40만 헥타 부지의 50년간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발표 (6.18일)
 - 동사는 일본과 필리핀에 사무소를 둔 영국계 기업(자본금 30백만엔)으로 금년말 런던 주식 시장 '대체투자 (Alternatice Investment) 시장 상장을 추진중임.
 - 동사는 과거 담배농장이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북부 루존지역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득했다면서, 필리핀 정부가 국내외 상관없이 기업에게 코코넛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위해 토지 허가권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발표.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일본에 주로 수출할 계획임.
 - 코코넛의 경우 palm과 달리 기름지지 않은 황무지에서도 쉽게 자라며, 필리핀 환경자원부 (DENR)의 추천으로 현재 경작지를 물색중이라고 함. (DENR 은 환경 평가 통해 경작 대상지 사용 승인권 발부 예정). 금년 8월중 생산능력 2톤/월 규모의 코코넛 오일 공장 (crushing plant)을 설립, 생산된 코코넛 오일을 바이오디젤 공장에 공급 예정이며, 2014년까지 비슷한 규모의 공장 5개와 연간 30만톤 규모의 코코넛 오일 정제, 바이오디젤 정유 공장(refinery plant)을 설립하여, 필리핀 및 일본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임.
 - 참고로 필리핀은 세계 최대 코코넛 오일 수출국이며,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의 대부분이 코코넛 오일을 원료로 사용중
- 최근 필리핀 정부와 1.75억 달러 규모 투자 MOU를 체결한 한국 에코솔루션의 필리핀 현지 법인인 Eco Global Bio-Oils Inc. 사도 자트로파 경작을 위해 Malungon시에 74,804 헥타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
 - 동사 Mr. Marc Gulle에 따르면 현재 총11,349 헥타의 자트로파 생산 부지를 확보했으며, 2년내 경작 규모를 20만 헥타로 확대 계획중이라고 함. 현재 추진중인 Malungon시 지역도 그중 일부며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도 설립할 계획임.
 - 동사는 또 Malungon시 Bawing 지구에 자트로파 오일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 6.8헥타의 부지도 확보했으며, 이외 Sarangani, Alabel 지역의 1만 헥타, Maasim, Kiamba 지역의 1.6만 헥타 등을 자트로파 추가 경작지로 고려중임.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 필리핀 최대 코코넛오일 생산기업 연합체인 CIIF Oils Mills Group 도 바이오디젤 생산 사업을 직접 수행코자 코코넛 농장들과 농장 사용계약(toll agreement)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6.25일)
 - CIIF Oils Mills (www.ciif.ph)는 필리핀내 5개 코코넛오일 제조사의 연합체로 필리핀 코코넛 오일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 전체 75만톤 규모의 분쇄공장(crushing plant)과 28만톤 규모의 정유설비(refining capacity)를 보유하고 있음.
 - 라구나(Laguna) 지역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인 Atson Coco Inc. 와 사용계약 마무리 단계로, 에너지부에 의해 바이오디젤 기업으로 정식 승인된 Atson Coco 사는 매년 24백만 리터의 바이오디젤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Mr.Arranza는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Shell, Petron 등 필리핀내 주요 정유사에 직접 판매 예정이라고 밝힘.
-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다수 기업이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현재 필리핀내에서 실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업은 2개사로 Leyte Agri Corp. 사와 San Carlos Bioenergy Inc. 프로젝트가 그것임. 이외 Cavite Biofuels Producers Inc. 등이 바이오에탄올 공장 설립을 추진중임.
 - 5% 혼합규정 준수 위한 필리핀내 연간 바이오에탄올 수요는 2.3억 리터이나 현재 국내 생산분은 39백만 리터로 17%에 불과, 전체 수요의 83% 정도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 Leyte Agri Corp. 사는 3.5억 페소(약 730만 달러)를 투자 2008년 30만 리터/월 생산규모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장을 2008년 완공
- San Carlos Bioenergy Inc. 사는 6.16일 필리핀 정부와 함께 바이오에탄올 수입 대체를 위해 자사 바이오에탄올 생산 설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바이오에탄올 생산 위한 원료 공급지를 찾고 있음.
 - 필리핀 정부 농산물마케팅 기관인 Philippine Agricultural Development & Commercial Corp.와 San Carlos Bioenergy Inc 사 Agbon 사장에 따르면 현재 추가 원료 공급 후보지로 Capas, South Bukidnon을 고려중이라고 함.
 - San Carlos Bioenergy 프로젝트는 영국계 기업인 Bronzeoak Phil.사가 주도하고 있음. Bronzeoak Phil.은 영국 BronzeOak 사가 25%, 필리핀 기업인 Zabaleta & Co사가 60%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으로, Zabaleta & Co사는 사탕수수 농장, 부동산개발 전문기업임.

- 동 공장은 2년간 공사 끝에 2009.3월 Negros Occidental Province, San Carlos City내에 완공 되었으며, 생산 Capacity는 연간 3천만리터, 하루 12.5만 리터에 달함.
 - BronzeOak 사에 따르면 현재 Capas 프로젝트는 이미 개발단계로 4,000~5,000 헥타의 사탕수수 농장을 대상으로, South Bukidnon 프로젝트도 이미 이지역 18헥타 땅을 바이오연료 원료 농지로 전용하는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역에 1만 헥타의 사탕수수 농장을 조성 예정이라고 함. 현재는 San Carlos 지역의 9천 헥타 사탕수수 농장에서 원료를 조달중
- 최근 바이오에너지법, 재생에너지법 제정과 정부의 잇따른 지원책 발표로 필리핀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참여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 경제 통상 정보

필리핀 재생에너지법 투자 인센티브 ABC

- 시행령 공포로 투자관심 높아져 -

- ☐ 필리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지난 6.12일 발효됨으로써 국내외에서 해당 분야 사업 추진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
 - 필리핀은 2008.12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 Republic Act No 9531)을 제정, 2009.1.30일 발효 시킨바 있으며, 동 법은 해당 분야 투자 확대 유도, 프로젝트 개발, 상업화 촉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 향상, 환경보호가 골자임.
 - 동법에서 규정하는 재생에너지는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며, 바이오연료의 경우 2007년 제정된 Biofuel Act에서 별도 규정
- ☐ 필리핀 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분야 혜택은 재정, 비재정적 인센티브와 기타 특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득세 면제(Income Tax Holiday, ITH)
 - . 기 추진중인 RE 프로젝트 (단 재생에너지법 발효 시점에서 이미 7년 이상 상용화, 운영중인 프로젝트는 제외) 에 대해 상용화 이후 7년간 소득세 면제
 - . 신규 RE 투자건 (기 재생에너지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의 신규 추진 재생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 프로젝트 포함)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에 따른 프로젝트 상용화후 7년간 소득세 면제
 - .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추가 투자건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해 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즉 한개 프로젝트에 대한 총 소득세 면제 기간은 21년임.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인증서(RE Projects & Activities Developer'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획득시 10년간 관련 기계, 장비, 원료 수입시 관세 면제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소요되는 장비, 기계류에 대해서는 당초 비용, 감가상각누계차감액(less accumulated normal depreciation) 또는 순장부가치의 1.5%만 재산세로 부과(Real Property Tax), RE 자원개발과 발전설비 통합 프로젝트인 경우 동 재산세는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부과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용화후 첫 3년간 발생하는 순 영업손실액은 이후 7년간 발생하는 총수익(gross income)에서 공제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 소득세 면제기간(ITH, 7년) 종료시 필리핀 에너지부(DOE)에 등록하면 순이익(net income)의 10%를 법인소득세로 부과하는 우대 혜택 부여
 - 관련 설비, 기계, 장비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시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적용
 - 재생에너지 기업의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Zero-rated VAT), 일례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연료, 전력을 판매, RE 설비 건설 위한 상품/서비스의 필리핀 국내 구매, RE 자원 탐사 개발, 컨트렉터와의 서비스 계약비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
 -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 판매시 Tax 면제
 - 관련 자본재, 서비스 국내 거래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해외로부터 자본재, 원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충족시 100% 세금 공제혜택(Tax Credit) 부여
- 수력, 병합발전(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혼합 발전)시스템 활용 프로젝트 developer 도 REPA(Renewable Energy Projects & Activities) developer들이 받는 상기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
- 필리핀내에서 제조된 RE 장비, 부분품의 제조, 조립 공급업자도 일정 수준까지 Tax,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액, 중간재 수입시 납부 관세액의 100% 세액공제, 에너지부로부터 해당기업 순이익이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서비스 매출에서 발생했다는 증명서 발급 이후 7년간 법인소득세 면제(ITH), 국내 상품/서비스 거래시 부가세 영세율 혜택 부여
- 바이오매스 원료 경작 농민과 기업도 재생에너지법 발효후 10년간 관련 원료 장비에 대해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밖에 재생에너지 부분품 구매시 세금 환급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현재는 필리핀 국세청(BIR)에서 상기 인센티브들을 반영한 세무 규정 공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며, 해당 분야 진출 기업은 동 인센티브 내역에 주의를 기울여 부여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필리핀, 최적의 입지조건으로 풍력발전 선도

- 국내외 투자유치 적극 추진 -

□ 필리핀 정부 에너지정책

- 필리핀 에너지부는 2014년까지 현재 에너지 자급률을 현재의 40%에서 6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 에너지계획 2005-14"를 수립, 추진중임.
- 필리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 증대 뿐 아니라 2013년까지 재생에너지(지열, 수력, 풍력, 태양열 등) 사용 전력생산을 현재보다 100% 증대(9.1GW)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2007년 필리핀 바이오연료법(The Philippine Biofuels Act), 2008년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Act)을 제정

□ 풍력발전 최적의 입지 조건 보유

-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몬순벨트에 위치하고 있어 풍력발전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으며, 관련기관인 Philippine Geophysical Astronomical Services Administration(PAG-ASA)는 자국의 풍력에너지 생산능력을 W/m²당 평균 31W로 추정
- 미국 에너지부도 필리핀 풍력자원이 필리핀 현재 에너지 수요의 7배인 7000MW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World Wildlife Foundation(WWF)는 필리핀의 경우 1038개의 조사지역에서 7404MW 풍력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음.
- WWF는 필리핀의 3개 섬에서 생산 가능한 풍력에너지 잠재력을 다음과 같이 추정함.
(필리핀은 7107개 섬으로 구성됐으며, 전체가 3개 지역으로 구분됨.)
 - 루손(Luzon Island) : 28개 Province 686개 유망지역, 4900MW 생산 잠재력 보유
 - 비사야스(Visayas) : 305개 유망지역 2168MW 생산 잠재력 보유
 - 민다나오(Mindanao islands) : 47개 유망지역 336MW 생산잠재력 보유
- 필리핀 정부도 풍력발전소가 향후 10년간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국 에너지 수요의 1/3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통한 풍력발전 활성화에 노력중

□ 풍력발전소 가동현황

- 최적의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풍력발전 생산은 미미하며 현재 가동되는 풍력 발전단지 는 덴마크의 Northwind Power Development Corp.가 운영하는 33MW급 발전소 1개소에 불과함(Ilocos Norte에 위치한 Bangui만 발전소)
- 이 발전소는 Ilocos Norte주 전력 수요량의 40%를 공급중이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필리핀 전체 전력 수요량의 0.25%에 불과
- 이 풍력단지는 동남아 최초의 풍력터빈 발전소로 현재 2단계 프로젝트로 5개의 풍력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UNFCCC에 등록된 최초의 프로젝트로 연간 6만5000톤의 탄소배출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풍력발전소 확대를 위해 이미 6개의 Wind Farm Project를 추진중이며, 해당 프로젝트 및 전력생산 능력은 다음과 같음.
 - (1) PNOC-Energy Development Corp.(PNOC-EDC)(140MW)
 - (2) UPC Asia(100MW)
 - (3) Energy Logics(40~60MW)
 - (4) A Spanish firm in Burgos province(10~15MW)
 - (5) Aklan Project (10~15MW)
 - (6) Bulalacao project (40MW)

□ 풍력발전 유망지역

-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지난 2007년 16곳의 풍력발전 유망지역을 선정, 발표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중임.
- 선정된 16개 지역은 Carmen and Oslob(Cebu), Bago City and Cauayan(Negros Occidental), Allen-Lavesares and Calbayog City(Northern Samar), Siquijor, Pasuquin, Ilocos Norte, Bantay(Ilocos Sur), Bani and Bolinao Pangasinan, Maconacon(Isabela), Tagaytay(Cavite), San Andres(Quezon), Mercedes and Daet Camarines Norte임.

□ 투자동향 및 실적

- 필리핀은 최적의 입지여건 및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풍력에너지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향후 대형 풍력단지 조성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필리핀 에너지부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여러 건의 재생에너지분야 신규 투자계약 건이 성사단계에 있으며 여기에는 풍력에너지 투자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마닐라 센터에서 필리핀 에너지부 담당국장인 Marasigan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건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타당성 조사단계로 나타났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추진업체명	프로젝트 추진지역
Asia Renewable Corp.	Pangasinan
Philippine Hybrid Energy System Inc.	Marinque, Oriental Mindoro
Masbate, San Carlos Wind Power Corp.	Negros Occidental
Coastal Power Development Corp.	Nueva Ecija
Energy Logistics Philippines, Inc.	Ilocos Norte
Alterenergy Philippine Holdings Corp.	Rizal, Laguna, Occidental Mindoro

주 1: 프로젝트 중 일부는 KOTRA 마닐라 KBC가 프로젝트 Executive Summary 입수 예정

2: Alterenergy사는 한국의 동서발전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09.5.30 MOU 체결완료

- 필리핀은 만성적인 전력부족으로 전기료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비싸 에너지 자원확보 및 전력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며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정책을 시행 중에 있어 풍력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및 풍력발전소 건립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기업의 참여도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필리핀 재생에너지 투자포럼, 외국기업 투자 발표 잇따라

-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협력 모색, 영국기업 바이오매스, 풍력 투자 -

- 필리핀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관련 2009.6월 들어 관련 포럼이 잇따라 개최, 6.17일 USAID가 주도하여 개최한 Clean Energy Forum 과 ADB가 다음날 개최한 Clean Energy Forum (6.15) 이 그것임. 아울러 영국 등 외국 기업들의 해당 분야 투자 발표도 이어지고 있음.

- 마닐라에 본부를 둔 ADB(아시아개발은행)가 개최한 포럼에는 ADB, 필리핀 에너지부 등 관계자 참석, ADB는 클린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를 2013년부터 연간 2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
 - 2008년 ADB의 클린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16억 달러 수준, 이는 에너지 분야 투자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ADB, Sustainable Infrastructure Division 의 업무총 Director가 언급. ADB의 클린에너지 투자 확대는 2005년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키로한 에너지 효율확대방안(energy efficienc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ADB는 현재까지 중국, 인도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부탄, 중국, 베트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필리핀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지원해 왔음.
 - 이중 필리핀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투자 건은 2009.1월 31백만불을 지원, 13백만 개의 에너지 절감 전등을 가정, 관공소, 기업에 지원하고 관련 에너지 서비스 회사 설립을 지원. 이와 관련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메트로마닐라, 세부, 다바오, 카가얀디오로 지역에 5백만 개의 형광등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 (필리핀은 아직까지 대부분 백열등 사용)
 - ADB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도 동 프로젝트가 연료 사용 절감 기술을 채택하는 경우만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중이라고 밝힘. ADB는 2008년 미국 AES 사의 600MW급 Masinloc 석탄화력 발전소 인수 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지원한바 있음.

- 한편 이날 포럼에서 ADB의 민간투자건 지원참여 부서인 PSOD(Private Sector Operations Department)의 Philip Erquiaga 국장(Director General)과 투자은행들은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신생 벤처기업들이 많고 비즈니스 실적이 부족해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 이의 해결을 위해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정부 지원의 우수한 Feasibility Study 수행, 보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PSOD (Private Sector Operation Department (민간사업부))

-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ADB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ADB 자금지원 협조, ADB의 민간에 대한 자금 대여 및 투자 기구 역할 수행
- 투자분야는 크게 두가지로 자본시장과 Infrastructure 분야. 일부 자금 대여도 하지만 보통은 Equity 투자형식(25% 이하), 건당 최대 2.5억 달러 달러까지 투자 가능, 최근 녹색, 친환경 산업(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메스 분야 등)분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며, 프로젝트 지원 평가 기준은 이행가능성(Viability)과 수익성(Profitability)이 가장 중요 요소
- 지원대상 프로젝트 발굴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해당국 정부가 제안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제안하는 경우, PSOD가 해외 컨퍼런스 등을 통해 발굴하는 경우임.
- Loan 이자율 수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민간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

ADB의 CDM, Clean Energy 산업 지원 전략 / 프로젝트 현황

ADB는 'Strategy 2020'이라는 전략하에 산업별 비중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ADB는 World Bank 등 타 다국적개발은행(MDB)와 함께 '클린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Clean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구축, Strategy 2020에도 이를 반영하고 친환경에너지,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ADB 기후변화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지체(Climate Change Mitigation) 및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Adaptation Program)을 통합한 것으로 두가지 목표하에 ADB가 추진중인 주요 프로그램/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촉진
 - 수요 측면의 에너지 효율 향상 (Demand-side Energy Efficiency) 개도국의 경우 모터, 전등 등에 소비되는 1unit의 전기를 절약하면, 발전소에서 10unit의 투입물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ADB는 현재 중국 광동성 공업 및 산업단지 전력 소비 장비를 에너지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 6천만 가구 전등을 에너지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는 프로젝트 추진 검토 중이다.

- 공급 측면의 에너지 효율 향상 (Supply-side Energy Efficiency) 전력생산에 있어 일반 발전소가 사용하는 subcritical steam turbine을 신형 supercritical turbine 으로 교체시 20% 에너지 효율 증대 효과가 있다. 이에 ADB는 현재 인도에 supercritical turbine 사용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최종 단계에 있다. 동발전소 완공시 인도 에너지 효율은 33%에서 43%로 향상되고, 석탄소모도 크게 줄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 연료 전환 (Renewable energy and fuel switching)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야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 동 분야에서 ADB는 다수 국가에서 열병합, 풍력, 지열, 소수력, 태양열 온수난방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그동안 ADB는 5~100MW급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행한바 있으며, 현재 인도에서 Tata사의 투자파트너로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지열 발전소 건설, 중국 지열온수난방시스템,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키르키즈 공화국에서 천연가스 송유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바 있다.

- 효율적, 지속 개발 가능 교통시스템 구축

아시아 개도국 지역은 최근 자가용 등 차량수요가 폭증하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ADB는 회원국과 협조 도로개선,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에너지고효율 차량 도입, 대중교통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지원중이다. 현재 GMS 프로그램(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 Greater Mekong Subregion) 의 일환으로 저탄소(Carbon-neutral) 저연비 엔진과 바이오디젤 차량 도입을 추진중이다.

- 도시위생 개선 및 메탄가스(fugitive methane) 배출 감축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탈루성 메탄은 장비의 고장이나 공기의 유입으로 발생하며, ADB는 이의 배출을 막기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쓰레기 매립에서 발생하는 전세계 메탄 발생의 12%를 차지하며, ADB는 중국에서 폐기물에너지(waste-to-energy) 프로젝트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60개 마을에 폐기물퇴비화(waste composting)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 토지, 삼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ADB는 삼림 보호와 재건을 위해 베트남에 9천만 달러를 지원, 'The Forest for Livelihood Improvement' 프로젝트 수행중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CDM 프로젝트 수행 위한 T/A 제공, 몽고와 중국에 건조지 농업 프로젝트 등을 지원중이다.

□ 한편 이날 포럼에서 ADB의 민간투자건 지원참여 부서인 PSOD(Private Sector Operations Department)의 Philip Erquiaga 국장(Director General)과 투자은행들은 재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신생 벤처기업들이 많고 비즈니스 실적이 부족해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USAID(US Agency for Int'l Development) 가 현지 전문기업들과 6.15일 개최한 'Clean Energy Forum' 은 클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기업과 투자기업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개최

-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보유기업, 투자자(은행, 민간 투자기업), 에너지부, USAID, 주필 미국상공회의소, World Bank-IFC 관계자, 클린에너지 전문가(컨설팅, developer)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6개 프로젝트 추진기업이 투자 유치에 위한 프리젠테이션 실시,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날 참석한 에너지부 관계자는 필리핀은 향후 5년간 클린에너지 분야에 29억불, 에너지효율 분야에 10억불 투자가 필요하다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요청.
- 경진대회에 참여한 민간 프로젝트는 풍력발전, 폐기물 발전, 바이오메스 프로젝트, 휴대용 태양전지 분야 6개 프로젝트로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5억불 이상임. 이날 프리젠테이션을 토대로 심사위원단은 2개 프로젝트에 대해 '필리핀 Clean Energy Financing Award'를 수여할 계획임.

□ 아울러 6.16일 영국 기업인 Global Green Power PLC Corp. 사의 바이오메스 발전소(전체 발전용량 360MW), 풍력 발전소(전체 발전용량 200MW) 프로젝트 투자 계획도 발표 되었음. Global Green Power PLC Corp.는 필리핀 투자법에 의거, 자사가 40% 지분을 보유한 현지 법인인 Global Green Power 설립

- Global Green Power의 Montaigne 사장은 필리핀 재생에너지 시행령(2009.6.12일 발효) 발효를 기다려 왔고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초기 투자로 Panay, Nueva Ecija, Pangasinan 3개 지역에 총합 15MW 규모의 바이오메스 발전소 건설위한 장비, 서비스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동 3개 바이오메스 발전소의 투자비용은 1개당 4천만 달러 수준이며, 전체 발전용량은 30MW이나 우선 절반 정도를 가동할 것이라고 함. 아울러 네 번째 바이오메스 발전소는 Negros Island 지역에 2010년에 세워질 것이라고 밝힘.
- 상기 4개 포함 동사는 매년 3~4개의 바이오메스 발전소를 건설, 필리핀 전역에 12개

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전체 발전용량 360MW)를 건설한다는 계획임.

- 아울러 동사는 50MW 급 풍력 발전소 4개 건설 예정으로 필리핀 에너지 규제당국 (ER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feed-in tarriffs 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feed-in tarriffs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생산된 전기를 일정 가격에 12년간 구매 보장해 주는 제도임.
- 필리핀은 자연환경상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프로젝트 Developer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특히 2008년말 재생에너지법 발효, 2009.12월 관련 시행령 공표로 필리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키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추세임.

▣ 투자 Project 정보

- 하기 프로젝트는 CDM 프로젝트 Developer 인 CAFIS, TAREC, CNet Business Consultancy Services 와 협력,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 신뢰성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San Lorenzo Wind Project

The San Lorenzo Wind Project is located in the Municipality of San Lorenzo, Guimaras 25km from the capital town of Jordan. The projected started in August 2007 when a 40m meteorological mast tower was installed at the site.

A Pre-feasibility Study was completed by a Technical Advisor in November 2008 based on eleven months of data(Sept 2007 – Jul 2008) which indicated that area has a moderate wind climate and can support an estimated total capacity of 54MW.

The project which is estimated to cost \$125.3 million is programmed to be operational by 2012. Data showed an annual mean wind speed of 4.76m/s and 5.18m/s at 30m and 40m hub heights respectively. The recorded monthly average wind speeds are shown below.

Estimated Average Wind Speeds at Various Hub Heights

Hub Heights	Wind Speeds	Hub Heights	Wind Speeds
30m	4.76m/s	60m	5.79m/s
40m	5.18m/s	70m	6.02m/s
50	5.66ms	80m	6.22m/s

*Based on actual data

Power in Guimaras Island is currently supplied by the National Power Corporation from the Grid through the 13.2kV submarine cable owned by the local distribution utility, GUIMELCO, and by the 3.4MW diesel power plant of Trans-Asia located within the island. Presently, Guimaras is land only has a peak demand of 5.9 MW and is projected to reach only 6.7MW by the start of commercial operation in 2012. This means that the proposed 54MW wind farm will have excess capacity that will have to be exported from Guimaras to the Cebu-Negros-Panay Grid. The existing submarine cable must be upgraded to 69kV to handle this capacity. The Renewable Energy Law with its recently promulgated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mandates that the National Grid Corporation and all Distribution Utilities shall include the required connection facilities for RE-based power facilities in thei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Development Plans.

Mindoro 풍력발전 Project

Executive Summary

HES 'Code Name', is developing a 15 MW Wind Energy Power System(WEPS) Project(the "Project") at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that will supply electricity to Oriental Mindoro Electric Cooperative, Inc.(ORMECO) as the primary off-taker, and to Occidental Mindoro Electric Cooperative, Inc.(OMECO), a potential secondary off-taker in the project expansion phase. The WEPS Project will supply approximately 23% of Oriental Mindoro's annual demand starting in 2009. HES plans to complete development of the Mindoro WEPS Project in 3Q2008, and achieve commercial operation in 3Q2009. The Project will supply 38-42,000 MWh per year to ORMECO, and potentially 15-16,000 MWh per year to OMECO in the future, via the NPC-SPUG 69 kV sub-transmission line at a net price less than PHP 5.00/kWh, which is PHP 1.30/kWh less than the Subsidy Approved Generation Rate (SAGR) and ~PHP3.30/kWh less than the True Cost Generation Rate(TCGR) of diesel energy.

- HES has signed a Production-sharing Contract for OSW Energy Resources - Pre-Commercial Contract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on April 9, 2004, granting HES the exclusive right to develop a wind power project at the Puerto Galera site.
- HES has established the availability of economically developable wind resources at the Puerto Galera site. Wind data recorded over a 2-year period indicate good wind conditions with an average annual wind speed >7.0 m/s at 30 meters. HES's wind resource assessment has been reviewed and confirmed by an independent Consultant.
- Two (2) 60-meter meteorological towers were installed in November 2007 at the Puerto Galera site. Wind data recorded by the two met towers during the first 5 months confirm average wind speeds >8.0 m/s at hub-height (60 m).
- BreezElectric has completed an optimum WEPS design for Mindoro which utilizes the most appropriate wind turbine technology for that site. The wind turbine units are pitch-controlled,
- the 25-year ORMECO Energy Sales Agreement (ESA) was signed in April, 2006. The net Tariff of ~PHP 4.90/kWh (including the Interconnection Fee) is substantially less than the SAGR (~PHP 6.20/kWh) and the TCGR of DG energy (>PHP 8.00/kWh).
- HES and NPC-SPUG negotiated and signed the Transmission Services Agreement (TSA) in 2Q2007.
- HES has obtained Local Government Unit (LGU) endorsements and approvals for the WEPS Project in Puerto Galera in 2007.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 The Board of Investments (BOI) has approved and registered the Mindoro WEPS Project as a priority pioneer project in June 2007. Wind energy development is a priority investment under the BOI 2004 Investment Priority Plan, and upon registration with BOI, is entitled to the financial and other incentives.
- The 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IEE) of the Puerto Galera WEPS site was completed. The Environmental Certificate of Compliance was issued by DENR in October 2007.
- BreezElectric LLC, HES's parent company, has signed and executed a Letter of Intent (LOI) in June 2007 with a Local Partner for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phase of the Mindoro Wind Project.

Luzon Landfill Gas Project

Project Name	Landfill Gas to Power
Country	Philippines, Luzon
Project Background	The landfill owners are looking for a Build-Operate-Transfer(BOT)/Build-Own-Operate(BOO)/performance contracting type of agreement for the engine-generator system that will supply power to the grid; a local company will operate the facility. The owner has commissioned a similar project in the Philippines that is now operational.
Project Type	Renewable Energy/Biogas
Project Scope	Initially designed for 4-MW Capacity, up to 6-MW in the future
Emission Reductions	Estimate: 18,000t/yr(grid) for 4MW Methane emission avoidance t.b.d.
Funding Method	Estimate: Capital cost for 4MW equipment US\$6.65 Million
Project Details	4 sets of 1MW engine-generators. Customer is considering Jenbacher or Waukesha reciprocating engines or Capstone Microturbine technology. The balance-of-Plant(BOP) such as the digester system and electrical system are excluded from this request.

Visayas 바이오매스 에너지 Project

In response to the adverse impact of a power shortage, AOPC 'code name' will establish a 23-MW "clean" energy base load to augment the precarious supply from the electric cooperatives.

After winning a bid for 25 MW capacity out of 90 MW being offered by the Panay-Guimaras Power Supply Consortium, AOPC shall construct and operate 7 power plants in 5 provinces in Western Visayas to supply electricity to 7 electric cooperatives (EC) using biomass mainly rice straw and rice husk as feedstock.

Our confidence level in the sustainability of supply of our feedstock is further bolstered by the results of our Resource Assessment Survey that we had conducted last October 2008 and the Calorific Test Results which showed the high heating values of these feedstock. The feedstock covered are the rice straws, rice husks, woodchips, sugarcane waste or trash, bagasse, coconut shell and husks.

AOPC targets to start commercial operation by 01 January 2011. By this time the PSA between the 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 – the country's largest power producer owned by the government, and the ECs would have expired. Our Company will be replacing almost 30% of the power supply vacuum that will be left by the expiration of the NPC-EC Contract.

The signing of Renewable Energy Act No. 9513 has ushered additional economic gains for the project due to its attractive incentives, e.g. 7 year income tax holiday, duty free importation and tax exemption for Carbon Credit Revenues. This will further enhance the expected return on the invested capital especially with the inclusion of an estimated annual 78,000 tons of CO2 reduction (1.56 Gt CO2 over 20 years) via th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Name	Waste to Energy Initiative involving Clean Energy Base Load Power Plant Project
Location	Panay – Guimaras - Negros Regions (Western Visayas Region 6)
Installed Capacity	114MW
Annual Electricity Generation	684, 087, 552 KWH
Plant Type	Regenerative Cycle Steam Turbine Power Plant
Commercial Operations Date	January 01, 2011
Plant Life (Years)	20 Years
Construction Period	12 Months
Fuel	Biomass
Electricity Tariff	US \$ 0.12 per KWH
Total Project Cost	US \$ 285.0 Million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The Project is scalable under the following Phases of Project Implementation

Phase	Initial /Additional Installed Capacity (in MW)	Total Installed Capacity (in MW)	Project Cost
I	114	114	US\$ 285M(Php 13.68B)
II	45	159	US\$ 112.5M(Php 5.40B)

- 하기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광산투자 프로젝트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의 신뢰성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1

Area Coverage	1,603 hectares
Mining Tenement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5 VI
Date File	November 5, 2007
Location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Commodity	Gold, Copper, Silver, etc.
Ore Analysis	7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Locator	Ms. Susan P. Lim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2

Area Coverage	1,235.25 hectares
Mining Tenement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3 VI
Date File	October 1, 2007
Location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Commodity	Gold, Copper, Silver, etc.
Ore Analysis	4.5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Locator	Mr, Quirico G. Pe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 하기 프로젝트는 필리핀 대표 투자 컨설팅 Firm (Private Equity Adviser) 인 Argosy사와 협력, 제공하는 FDI(직접투자)분야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 신뢰성과 KOTRA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 Miner 'Code Name' is a private mining company with projects in Leyte, Philippines

Controls 40,000 ha of claim applications (two large mining permits just granted).

Completed 33,440 meters of drilling in 3,597 holes. Reserves of 10 million tons of measured and 192 million tons of indicated recoverable magnetite concentrate (> \$100 Billion).

- Miner is working on three independent but synergistic projects:

Magnetite sand mining and magnetite concentrate processing;

Sponge iron production and downstream conversion to steel and vanadium; Ferronickel production.

- All projects require:

Little capital and exhibit very low operational costs (bottom 25%). Profitable at the lowest iron and nickel prices over the last 10 years. Estimated revenue of \$244 million in Stage1 and \$ 2 billion in Stage2 and pretax profit of \$149 million per year for Stage 1 and \$1.2 billion for Stage2.

- Miner obtained rights to 50% JV over decommissioned cement plant

With minor modification will be used to produce Sponge Iron and Ferronickel. Consequently, capital costs kept to a minimum.

- Ferronickel Operation

Two lines allocated (lines 1 & 2). Line 1, 90% rehabilitated, Price is \$890 (5.3% Ni) and cost is \$339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ferronickel price goes down to \$20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3,271 per ton and lowest \$574 per ton.

- Sponge Iron Operation

Price is \$350 and cost is \$247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sponge iron price goes to \$19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800 per ton and lowest \$200 per ton.

- Significant upside on downstream Operations

Three million steel productions for local market in a Stage 2 integrated steel and vanadium operation using low cost geothermal power generated near to the magnetite production area. Cash costs amongst lowest in world – significant vanadium byproduct credits

- A low risk brownfields restart, not a greenfields start-up:

INCO was exporting 1 million tons/year and was highly profitable;
Operations closed in 1975 due to ban on beach sand mining;
Restart due to new Mining Act and growth in worldwide demand.

- Favorable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Low population density and economically depressed area;
Mining process is simple, no chemicals. Land is restored to a better condition within a 6 month period; Crop yields increase and farmers generously compensated.

- Economic Factors: (November costs and prices)

Mining/processing cost in lowest quartile on world cash cost curve(\$15/ton). Current price is \$47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was \$75 per ton and the lowest \$19 per ton. Magnetite concentrate production rate per year of up to 10 million tons is practicable; Off-take agreement for initial supply of 1.2 million and up to 3.6 million tons for export and 1.0 million for domestic processing.

▣ 전문가 칼럼

필리핀 투자진출 추진시 유의사항

한국이 해외투자를 통해 경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서 당연한 과정일지 모른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은 필리핀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지금도 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저임금 등 생산비 절감을 노린 생산설비 이전으로 시작된 필리핀 투자진출은 이제 중공업과 부동산, 관광레저,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필자가 처음 필리핀에 투자했던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필리핀 투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해 줄 기관이 없었다. 필리핀 정부 관련 부처에서조차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KOTRA 같은 기관도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 있다 할 지라도 투자의 성공은 역시 기업이 얼마나 해당 투자 건에 대해 애정을 갖고 검토하고 조사하느냐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근래에 바이오, 재생에너지, 농업분야로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필리핀에 투자할 경우 대표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투자 시 사전 검토와 현지 답사와 관련한 것으로 투자 대상 분야에 대한 검토는 투자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 할 수도 있다. 규모가 작은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나, 대형 투자건의 경우 해당 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의뢰 및 조사토록 하고 이후 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투자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도 관련사업의 타기관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경우 관련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정보로 투자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투자 절차, 법률적 문제는 서류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준비 중에 있는 법개정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KOTRA 나 필리핀상공회의소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투자지역 및 규모 결정에 관한 것이다. 투자지역 선정은 투자분야에 따라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출제조업인 경우는 인센티브, 운영 편의성 등을 고려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수출자유지역(EPZA), 클라크, 수빅 경제구역(CDC/SUBIC) 등을 고려

할 수 있고, 이런 경제특구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 투자위원회(BOI)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해당 입지의 인력수급문제, 원자재와 제품의 수송 및 전기, 상하수도 관련 기간시설 비용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업이나 관광산업의 경우 선정지역의 상권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안전성이다. 필리핀은 도시와 지방에 관계 없이 치안 취약지구가 다수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영어를 구사하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적격 인력수급이 용이하고 임직원이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유리하다.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경우는 필리핀 내수시장 규모와 특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필리핀은 9천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많지만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8분의 1정도에 불과, 구매력이 인구에 비해 크지 않다. 이에 처음부터 사업 규모를 크게 벌리기 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현지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문제로 투자가 결정되면 현지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영어와 현지어를 구사하는 인력 채용 시 어학 훈련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 본사에서 한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영어와 간단한 현지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에서 영어 구사가 힘들면 회사 운영이나 대외관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문화적응 훈련이다. 한국과 필리핀 문화 차이를 이해하여 직원들과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특히 필리핀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회사운영, 해당 산업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대한 전반적 개요를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또한 문제 발생시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식 법체계를 갖고 있는 필리핀은 변호사의 나라다. 모든 것이 변호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회사 임직원이 관련 법규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하고 결국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 관련 법규에 대한 개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변호사를 가이드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 투자자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각종 세미나에 부지런히 참석하거나 관련 서적을 탐독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회사 설립준비 및 설립과 관련된 것으로 법인 설립은 요식행위라 할 수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이미 관련법규를 다 검토한 경우 설립에 큰 문제가 없지만 회사 설립시도 설립서류를 준비하면서 먼저 도상연습을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도상연습이란 관련된 서류와 법규를 한 곳에 모아놓고 서류에 하자가 없는지 또는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필수 서류를 먼저 접수한 후 보충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불미스런 일이 발생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3

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은 미국, 스페인 등의 행정체계를 따온 만큼 모든 업무가 문서화되어 있다.

현지인을 채용 시 중요 보직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필리핀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거래에 수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 때 수표를 위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므로 수표 사인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 2인 이상이 할 수 없는 경우 인장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회사 운영단계에서 경영자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필리핀에서는 특히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두루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적 차이, 노사문제, 세무관계, 대정부관계 (지방정부 포함) 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어야 돌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고,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 직원들의 의도 비의도적인 잘못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얼마나 빨리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 얼마나 많이 필리핀에 열심히 동화되어 필리핀을 이해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고 하겠다.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이관수 자문위원
Shin Lim Industrial Corp. 대표이사

필리핀 내 제조공장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해외 생산기지를 건립코자 하는 기업은 공장 입지 후보지를 정하고 해당 입지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관련 법에 비취 해당 업종의 공장 설립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유불리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고려 요소별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입지 후보지 적합성 판정을 위해 해당 입지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의 정책, 규제 등 행정적 요인,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공장설립비용,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 요인, 물류비, 교통 접근성 등 생산 및 경영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입지선정 시 고려할 주요 상황을 필리핀 상황에 맞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요인을 점수화하기 보다는 각각 사항의 중요도를 개별 분석, 정량, 정성적 평가기준을 혼용하여 판단,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ETRO MANILA 행정, 비용 측면 입지 요인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일대 Cavite, Laguna, Batangas, Rizal, Quezon 지역을 소위 CALABARZON 지역이라 부른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Metro Manila 지역에서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아직까지 까다로운 규제는 없으나 City, Municipal 등 소행정 구역 단위로 공장 설립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성당 등에서 150m 이내 거리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해,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PEZA가 운영하는 경제자유구역은 필리핀 전역에 크고 작은 20여 개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이중 5개 공단은 필리핀 정부(PEZA)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비용

공장설립비용, 토지임차 비용(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 물류, 임금 등 기본적인 비용들을 파악한다.

유틸리티 비용

필리핀은 아직 전력사정이 열악한 곳이 많고, 지역별 발전, 송배전 기업이 구분 되어 있는바, 관련 전력 요금, 정전 빈도, 전력 안정성 등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상하수도 현황, 통신요금, 폐기물 처리 비용도 해당 지자체, 경제특구 관리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용뿐 아니라 공장을 새로 건립하는 경우 전력, 용수 공급 가능 시기 (대용량 전기의 경우 신규 설비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폐수 발생 업종은 하수처리장 현황, 장마 시 침수 여부도 중요 체크 대상이다.

업종별 입지 요인

필리핀 내 지방정부들은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특정 업종의 제조업 투자를 권장하는 반면, 유해 물질 발생 산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지역민들의 민원도 활발한바 이의 해당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 가공, 비금속 광물 제조, 목재 가공 등은 원료 산지와 접근성이 중요하고, 반대로 해당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필리핀의 상대적으로 비싼 물류비를 감안할 때 수입항구와의 접근성이 중요 고려사항이다. 필리핀의 주력 제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대규모 부지가 불필요하고 다습, 염해, 공해가 없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입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관련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집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풍부한 노동력, 공항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장단점

제조공장을 설립, 입주하는 경우 필리핀 정부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인지, 사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규 설립, 임차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공단 관리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산업 기반시설, 관련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인력수급, 공해, 폐수 처리 장치 이용이 용이하다. 관련산업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전후방 산업 단지와 인근에 위치 시 물류비 절감, 품질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산업단지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토지를 공급받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다소 비싸며, 관리기관의 여러면에서 관리 대상이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개별 입지에 공장을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원하는 시기, 장소에 시설물 확보가 용이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공장 설립 절차의 까다로움, 취약한 기반시설(전력, 용수, 물류 등), 편의 시설이 문제가 된다. 또한 지자체, 지역사회와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이외 필리핀 내 제조공장 입지선정 고려 요인으로 인근지 국토개발 계획, 개발 전망, 지가 동향 등 투자요인, 자연 환경적 요인(기후, 온도, 습도, 강우량 등), 원부자재 수급 용이성, 노조 현황, 대중 교통(회사의 보이지 않는 경쟁력 중 하나)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이원주 자문위원
Kay Lee Fashion Inc. 대표이사

▣ 경제 단신

필리핀 코코넛 오일 수출 반등

- 필리핀 코코넛 연합회(United Coconut Associations of the Philippines Inc.) 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던 필리핀 코코넛 오일 수출이 5월 들어 반등해라고 발표
- 세계 최대 코코넛 오일 수출국인 필리핀은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지는 유럽(68.7%)을 비롯 미국(14%), 일본(7%), 중국(5.6), 한국(4.7%) 등임.
- 지난 5월 수출규모는 53,387톤으로 전월 46,132톤 대비 약 7,000톤 가량 증가를 기록했으나 금년 1~5월 수출 누적량은 190,419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4%(408,909톤) 감소. 이는 코코넛 오일 수요 감소와 팜유 같은 유사제품 소비 증가에 기인 (Business World, 6.30)

필리핀 통상산업부 투자유치기관 업무조정 추진

- Favila 통상산업부(DTI) 장관은 필리핀내 분산된 8개 투자유치기관(Eight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간 업무 협조 요구
- 8개 유치기관은 필리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Aurora 특별경제자유구역청(Auror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Cagayan 경제자유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PHIVIDEC 산업청(PHIVIDEC Industrial Authority), 수빅자유구역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Zamboanga 특별경제구역(Zamboanga City Special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 Pascual 경제자유구역청(PEZA) 대변인도 8개 유치 기관이 투자유치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DTI-Philippine Business Report)

NEDA, 철도 방송 분야 1.5억 달러 프로젝트 승인

- 필리핀 경제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가 하기 3개 프로젝트에 1.5억달러 투자결정
 - North Luzon Railway Project(US\$1.25억 달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 Northrail-Southrail 연결 프로젝트, 1단계 사업(US\$0.15억 달러, Caloocan~Calamba 구간 펜스 설치 및 Paco 기차역 건설), People's Television Network Inc. 재건 프로젝트(US\$0.10억 달러, 기존 아나로그 방송 설비 교체)
- 이외 Bantay, Magsingal, Sto. Domingo, san Vicente, San Ildefonso, Vigan 지역 (5,215 농가, 6,000ha 지역) 관개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지원 및 기간 연장,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중장기 자금 지원 승인 (Business World, 6.29)

Global Biomass 3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원료 공급 계약 체결

- 필리핀 Global Biomass PLC Corp.사는 Green Power Panay Philippines Inc., Green Power Nueva Ecija Philippines, Inc., Green Power Pangasinan Philippine, Inc., 3개사를 대상으로 25년간 각각 9억페소(US\$ 약 19백만 달러) 상당의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키로 계약 체결
- 영국계 기업인 Global Biomass PLC Corp. 사는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운송, 저장 분야에 투자 예정이며, 바이오매스 원료 매입사들은 각각 15MW급 발전소 건설 예정
- 바이오매스 원료로는 옥수수, 벧집, 사탕수수 부산물 등이 사용 예정이며, 필리핀 에너지부와 농업부도 관심 표명 (Business World, 6.26)

RD Group, Sarangani 지역에 5.2백만불 투자, 조선소 건립 추진

- RD Group of Companies 자회사인 General Santos Shipyard and Machine Works Inc.가 2.5억 페소(약 5.2백만불)을 투자 Sarangani, Maasim 지역에 조선소를 건립한다고 발표
- 금년중 가동을 목표로 하는 동 조선소는 민다나오 지역 최대 조선소가 될 전망이다. (DTI-Philippine Business Report)

美 Stream Global Services사 콜센터 사업 12백만불 증액투자, 아태 본부화 추진

- 미국계 콜센터 전문기업인 Stream Global Services, Inc.사, 필리핀 두번째 콜센터 오픈
 - 美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동사는 19개국 34개 사무소에서 17,000여명을 고용중이며, '08년 1.4억 불 매출을 기록한 콜센터 전문기업임.
 - 동사는 '08년 마닐라 마카티 지역 내 콜센터를 개소, 600명 직원을 채용한바 있으며, 이번 콜센터는 1,400명 규모임. 금년 내 3,000석, 2010년까지 5,000석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Business World, 6.30)

英 Cyber City Teleservices사 콜센터 투자건, BOI 인센티브 확정

- 필리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Cyber City Teleservices(필리핀 법인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정
 - 영국계 콜센터로 주로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Inbounding(Trouble Shooting) 콜센터 비즈니스 수행, 초기 자본금 4,800만 페소(US\$ 약 100만 달러), 1차 280명 인력 채용, 향후 250개 좌석 추가 운영 예정임.
- 동건은 'Non-Pioneer Status' 자격으로 4년간의 소득세 면제 혜택 수혜. 2009 투자유치 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y Plan)에 의해 서비스 수출은 투자유치 우선분야 임.
- 필리핀 BPO협회(The Business Processing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는 금년도 해당 산업 고용 창출 및 성장율이 각각 110,000명,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Business World, 6.25)

▣ 투자진출 A to Z

BOI, PEZA 인센티브 신청후 승인까지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필리핀 내 법인 설립시 법인등기와 별도로 해당 업종의 경우 BOI(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PEZA(경제자유구역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등 투자유치 기관에 인센티브 혜택을 신청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규모,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2~3주 정도입니다.

PEZA는 통상 14일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매월 2회 개최되는 Board 미팅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BOI는 1987 Omnibus Investments Code 에 의거 서류를 완비, 신청서 제출후 20일내에 위원회 등이 소집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자동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 주요 경제 지표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성장률	2.96	4.43	4.52	6.18	4.97	5.37	7.2	4.6
GDP(US\$10 억불)	72.0	78.0	79.6	86.7	98.4	116.9	135.6	145.9
GNP(US\$10 억불)	76.8	83.1	85.4	93.4	106.7	127.8	157.6	186.4
1 인당 GDP(US\$)	905	970	977	1,038	1,153.8	1,344.7	1,629.2	1712.4
1 인당 GNP (US\$)	978	1,034	1,050	1,118	1,251.2	1,470.0	1,777.0	2,061.0
수 출 (US\$ 10 억불)	32.3	35.0	36.2	39.6	40.5	46.2	49.4	49.1
수 입 (US\$ 10 억불)	29.6	33.5	37.4	40.3	47.7	53.1	55.9	56.7
연평균환율 (미\$:페소)	50.993	51.604	54.203	56.040	55.085	51.314	46.55	44.47
소비자물가 (%)	6.1	3.1	3.1	6.0	7.6	6.2	2.8	6.2
실업율 (%)	11.1	11.4	11.4	11.8	8.7	7.9	7.3	7.7
산업 구조								
- 농수산업 (%)	14.9	14.7	14.5	15.2	14.3	14	14	14.1
- 2 차 산업 (%)	32.4	32.5	32.3	31.9	32.2	32	31	31.7
- 서비스업 (%)	52.6	52.8	53.2	52.9	53.4	54	55	54.2
해외근로자 송금액 (US\$ 10 억불)	6.0	7.2	7.6	8.6	10.7	12.8	14.5	16.4f
외 채 (US\$ 10 억불)	51.9	53.6	57.4	54.8	54.2	53.4	54.9	5.39f
대외채무의 GDP 비중(%)	72.9	69.8	72.5	63.7	55.1	45.4	38.1	31.95f
외환보유고 (US\$ 10 억불)	15.7	16.4	17.1	16.2	18.5	22.96	33.75	36.04

환율동향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페소/ 달러	46.55	44.47	47.35	47.59	48.54	48.21	47.58	47.94
원/ 달러	9353	1375.6	1354.7	1433.8	1460.09	1340.80	1260.41	1264.85
페소/원	20.39	28.82	28.81	30.28	30.24	27.97	26.63	26.54

▣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 안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투자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12월 해외진출정보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OIS내 '필리핀비즈니스 클럽(온라인 커뮤니티)'을 운영하고 있는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및 정보공유를 바랍니다.

- **주요제공정보:** 투자뉴스, 투자자료실, FAQ, Q&A 등
- **커뮤니티이용방법:** 홈페이지(www.ois.go.kr)에서 커뮤니티(카페명: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에 접속하고 커뮤니티 가입 후 정보 이용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변호사 무료 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해외투자진출 기업 및 기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진출 관련 제도 (법률, 노무, 세무) 및 경영 애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에 의한 내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필리핀 진출 기업 및 진출 추진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주 1회(**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 업체에 한해 센터 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이메일: hanskim@kotra.or.kr
- 연락처: +63-2-893-3244,1183

무역투자 정보포탈 (Global Window) 안내

KOTRA는 한국기업의 무역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전세계 국가에서 무역관이 수집한 정보를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 해외진출정보를 제외한 일반 통상 비즈니스 정보를 국별(필리핀 등)로 검색 가능합니다.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필리핀 투자뉴스의 지난호를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 상기 안내드린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 / '필리핀 투자뉴스' 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신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